

코스피 바닥은 어디?... “분할매수·리스크 관리 병행 필요”

‘AI 공포’에 요동치는 시장

과도한 공포로 인한 패닉셀 상황
현재 코스피 저평가 구간 진입

추격매도보다 분할매수 전략 추천
신용·레버리지 배제 현물중심 대응

삼성·SK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
추가 하락 가능성에도 반등 준비해야

‘코스피 5000’은 숫자 자체로 ‘공포’다. 하지만 시장의 고민은 오히려 지금부터다. 인공지능(AI) 버블의 중심에 있는 순환거래가 25년 전 닷컴버블 때를 닮아 있어서다. 그 중심에는 ‘AI 박람회’의 슈퍼스타 엔비디아가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현재 미국 경제는 AI 투자, 즉 ‘AI 거품’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의 ‘AI 및 반도체 굴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한다.

‘9천·1만피’ (코스피 지수 9000과 1만)를 외치던 증권가에서도 이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전문가들은 증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반도체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 엔비디아발 ‘순환금융’ 거래 논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움직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악재가 중첩되며 나타난 ‘패닉 셀’에 가깝다”면서도 “(증시의) 급격한 하락은 시장이 ‘행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29일(현지시간) 시장은 요동쳤다. 다우존스가 2.19% 넘게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했다. 미국채 금리는 급등(채권값 하락)했다. ‘AI 공포’에 시장이 백기를 드는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는 1.23% 하락한 5593.56에 마감했다.

◆“펀더멘털 아닌 심리 위축…이번 조정은 과도한 하락”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코스피 6800선을 향후 증시 흐름을 가늠할 핵심 지지선으로 꼽기도 했다. 6800선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지지선은 6500선으로 내려가고, 이마저 무너지면 6000선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6000선 아래로 추락하며 코스피는 다시 새로운 바닥을 찾아야 하는 상황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보다 69.68포인트(p)(1.23%) 하락한 5593.56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7.90포인트(p)(2.70%) 하락한 644.78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9.3원 내린 1437.4원 주간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에 놓였다. 일차적으로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 흥행과 중국 국영기업의 심자외선(DUV)노광장비 개발 소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시장 우위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고, 투자심리까지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낙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국내 수급 교란, 미국 금리 상승 우려 등이 시장을 짓누르며 조정 국면을 맞았다”며 “수급 장세에서 과도한 공포가 부른 패닉셀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익 증가와 주가치제고 등을 감안하면 현재 코스피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최근 조정 폭이 큰 부분은 펀더멘털보다 변동성 확대와 투자심리 위축 등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며 “중국 CXMT 상장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중국 내수 반도체 수요 증가 속도가 빠르고, CXMT 증설 규모를 감안해도 2028년까지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급락 과정에서 극도로 위축된 투자심리와 수급 압박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악재성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고, 현실 가능성 낮은 악재까지 기정 사실화하면서 투자심리와 수급 압박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창신 메모리의 위협과 중국 기

업의 DUV 노광장비 자체 개발 이슈가 과대 평가됐다는 얘기도.

김현 다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CXMT 상장과 중국 노광장비 국산화는 현 시점에서 가까운 미래 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기보다 심리적 촉매에 가깝다”며 “이번 반도체 급락은 기존 급상승장에서 높아진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역설적으로 충격을 증폭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의 모하메드 아파바이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헤드는 지난 28일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2일 약 525억달러(약 76조 3700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90억달러(약 27조 6400억원) 정도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씨티 리서치팀의 공식 자료가 아니라 주식 트레이딩 부문의 전라가가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한 시장 논평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전체 손실액은 약 56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자산별로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약 170억달러(약 24조 7400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본부장은 “최근의 잦은 서킷브레이커는 펀더멘털 변화보다 상승 과정에서 높아진 반도체 집중도와 레버리지 ETF의 수급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지난 29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F4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규제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개미들의 ‘행복 매도’와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으로 7월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4.01%, 29.62% 하락했다. 전세계 증시 중 가장 큰 하락률이다. 중국 선전성분지수의 두 배를 웃돈다. 일본 닛케이225와 대만 가권지수(TAIEX)도 최근 한 달간 각각 12.31%, 13.43%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바닥 근접했지만 변동성은 지속”... 레버리지·수급 변수 주의

날개없는 추락에 개인투자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신모(32·여)씨는 “어제 주가가 떨어져 3000만원 넘게 주식을 추가 매수했는데, 오늘 주가가 더 내려가니 하늘이 노랗다”며 “이젠 남은 돈도 없어 자포자기 상태”라고 했다. 이를 만에 약 15% 손실을 봤다는 최모(28·남)씨는 “밖은 폭염인데, 내 주식 창은 파란불만 가득한 장미”라고 했다. 이씨는 “상승장일 때 주식을 뺐다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개미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시장에서는 지금은 소나기(변동성)가 지나가길 기다릴 때라고 얘기한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악재장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상반가치처럼 조정 때마다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며 “단기 반등 이후 다시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도 “주가 변동성이 계속 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격 매도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고 했다. 양 센터장은 “이번 급락에서 확인됐듯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을 증폭시켜 개인의 손실을 키운 주범이 됐다”며 “신용·레버리지를 배제한 현물 중심 대응, 그리고 반등 시 일부 차익실현으로 현금을 재확보하는 리스크 관리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증시와 주식 전망도 보수적이다.

DB증권은 코스피 5300~5700선을 주요 지지대로 제시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5300~5700구간에 전체 거래량의 약 17%가 집중돼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돼 있다”며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한 만큼 향후 추세 전환의 핵심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5만원에서 37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4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각각 주저앉혔다.

김 본부장은 “금리 부담에 따른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위축이나 반도체 이익 전망의 급격한 하향 조정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추가 회복 시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전고점을 향한 ‘V자 반등’보다는 바닥권 확인 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주가를 결정하는 무게중심이 AI 수요 자체에서 고객사의 수익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업체의 성장률뿐 아니라 현금흐름과 영업이익률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센터장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재 위치는 매도보다는 보유 또는 분할 매수를 통해 반등을 준비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AI 투자의 지속 가능성인데, 빅테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AI 투자의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전체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공모주 잔혹사’ 방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세부기준 공개

금융위, 오는 11월 13일 시행
사전수요예측 제도 등 도입

기업공개(IPO) 이후 기관투자자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막기 위한 코너스톤(Cornerstone) 투자자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공모가 산정 전에 기관수요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함께 도입해 IPO 가격 결정의 합리성과 상장 이후 주가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하위법규에는 참여 자격과 운영 방식, 보호예수 기간 등 세부 기준이 담겼다. 입법에 고 기간은 9월 8일까지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주관사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치와 희망 공모가격, 공모 물량 등에 대한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기관 수요예측을 실시하지만 앞

으로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공모주 일부를 일반기관 수요예측 전에 미리 배정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 물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해 IPO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사전수요예측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등 현행 기관 수요예측과 유사한 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여기에 더해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IPO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 기준을 적용해 중소형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열었다.

코너스톤 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는 전체 물량의 50%를 6개월, 30%를 8개월, 나머지 20%를 10개월 동안 의무 보유해야 한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한꺼번에 몰려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기를 분산했다.

배정 물량은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물량을 제외한 기관투자자 배정분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는 최대

20%, 코스닥 상장사는 최대 30%로 제한된다. 개별 기관의 한도는 각각 10%, 20%다. 공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펀드 배정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특성을 반영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발행사나 인수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이나 다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수요예측 과정의 기업 정보는 비밀유지계약(ND A)을 체결한 기관에만 제공하고, 정보 제공과 수요예측, 사전청약 관련 기록은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정원 기자 zelkova@